

## 요약

기후변화는 사망률과 질병률을 변화시켜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장기적으로 볼 때 생명보험업은 극한 기상 현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생명보험회사들은 기후 관련 건강 위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혁신적인 상품 개발, 공·사 협력 방안을 고려해야 함.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글로벌 보험 회사들은 신시장 개척을 위해 기후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극한 기상 현상은 사망률과 질병률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sup>1)</sup>
  -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 기온과 대기오염이 이미 급증하였으며, 가뭄, 산불, 심각한 열대성 폭풍, 장기간의 폭염, 해수면 상승 및 홍수와 같은 극한 기상 현상들도 발생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에 따르면 현재 지구의 온도는 1850~1900년 사이의 온도보다 1.1°C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폭염, 가뭄 등 극한 기상 현상들이 자연과 인프라를 크게 파괴하고, 사망, 질병을 초래하고 있음
  - 기후변화는 질병 및 정신건강 문제 등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재해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한 지역사회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즉각적인 악영향에는 사망, 영양실조, 심혈관 질환,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인한 전염병 노출 등이 있으며, 기후 관련 재해로 인한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도 초래됨
  -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극한 기상 현상을 유발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450만 명의 사망자와 12조 5,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등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홍수와 가뭄은 기후 관련 사망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폭염은 경제적 손실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며, 말라리아와 뎅기열과 같은 질병은 기후변화에 민감해 증가·확산할 것으로 예측됨
- 제네바협회(Geneva Association)는 기후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까지는 주로 손해(P&C)보험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명(H&L)보험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sup>2)</sup>
  - 2010년대 이후 기후변화가 유발하는 폭풍, 폭염 등 극한 기상 현상은 빈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강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가 지속되면서 극한 기상 현상과 이에 따른 재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1) World Economic Forum(2024. 1), "Quantify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Human Health"

2) The Geneva Association(2024. 2), "CLIMATE CHANGE: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health and life insurance?"

-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극한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해 건수는 1970년대 711건에서 2010년대에는 3,16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피해 규모는 1970년대 1,754억 달러에서 1조 3,810억 달러로 약 8배 증가함
  -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손해보험업은 풍수해와 농작물 재해 관련 보험상품을 통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생명보험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물적 피해 위험과의 관련성이 낮음
    - 스위스리(Swiss Re)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변화와 관련된 극한 기상 현상과 자연재해로 발생한 보험 손실액은 1970년 30억 달러에서 2021년 1,010억 달러로 약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이 직접적인 사망자 발생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에서 PTSD에 이르는 다양한 질병(표 1) 참조)을 초래함으로써 생명보험업 손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 생명보험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 보장상품, 특히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의 손익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제네바협회는 생명보험회사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 예방을 위해 공·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생명보험회사들은 미래의 위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결과(문제)를 평가하여 기후 관련 사건 패턴과 인간의 사망률·질병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
    - 기후 관련 사건의 패턴을 인간의 사망률·질병률과 대조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면 생명보험회사가 기후 관련 건강 위험을 측정하는 능력이 저하돼 보험상품 개발 능력이 취약해질 것임
  - 또한 혁신적인 대안으로 파라메트릭보험(지수형 보험)과 같은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와 고객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위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보험회사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특정 위험(예: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 악화)을 정의하고, 그 규모와 발생 빈도를 정량화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기온이나 오염 등 관련 ‘트리거’를 설정해야 함
  - 마지막으로 공·사 협력을 추진하여 기후 관련 건강 위험 예방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건강과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후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기후 관련 건강 위험 평가와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전문성, 정책적 지원, 효과적 솔루션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요함
-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신시장 개척을 위해 기후 관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상품 및 고객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음<sup>3)</sup>
- 일본 재팬손보와 스미토모생명회사는 폭염으로 인한 질환의 입원 및 기타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각각 출시하였으며, 호주에서는 일부 건강보험회사들이 재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면제해주는 상품을 판매함
  - 포르투갈 피델리다데(Fidelidade)는 정신질환에 대해 검진,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멀티케어보험과 정신상담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함

3) BCG(2024. 1), “How Insurers Can Take On the Climate-Driven Health Crisis”

〈표 1〉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결과(문제) 예측

극한 기상 현상	발생 지역	건강 결과(문제)	극한 기상 현상	발생 지역	건강 결과(문제)
가뭄	아프리카 남동부	영양실조	폭풍	아시아	사망, 인적 손실
홍수	아프리카 중부	이질	홍수	동남아시아	이질
해수면 상승	아시아	고혈압	홍수	남아메리카 북부	PTSD
해수면 상승	아프리카	고혈압	홍수	아시아	뎅기열
홍수	동남아시아	PTSD	홍수	동남아시아	사망, 인적 손실
산불	미국 서부	범불안장애	폭염	동남아시아, 인도	온열질환
폭풍	아시아	PTSD	홍수	아프리카	뎅기열
가뭄	지중해	범불안장애	가뭄	지중해	콜레라
산불	지중해 유럽 부분	범불안장애	폭풍	북미주, 중미주	PTSD
가뭄	지중해	영양실조	폭풍	북미, 중미주	사망, 인적 손실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24. 1), “Quantify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Human Health”, p. 13